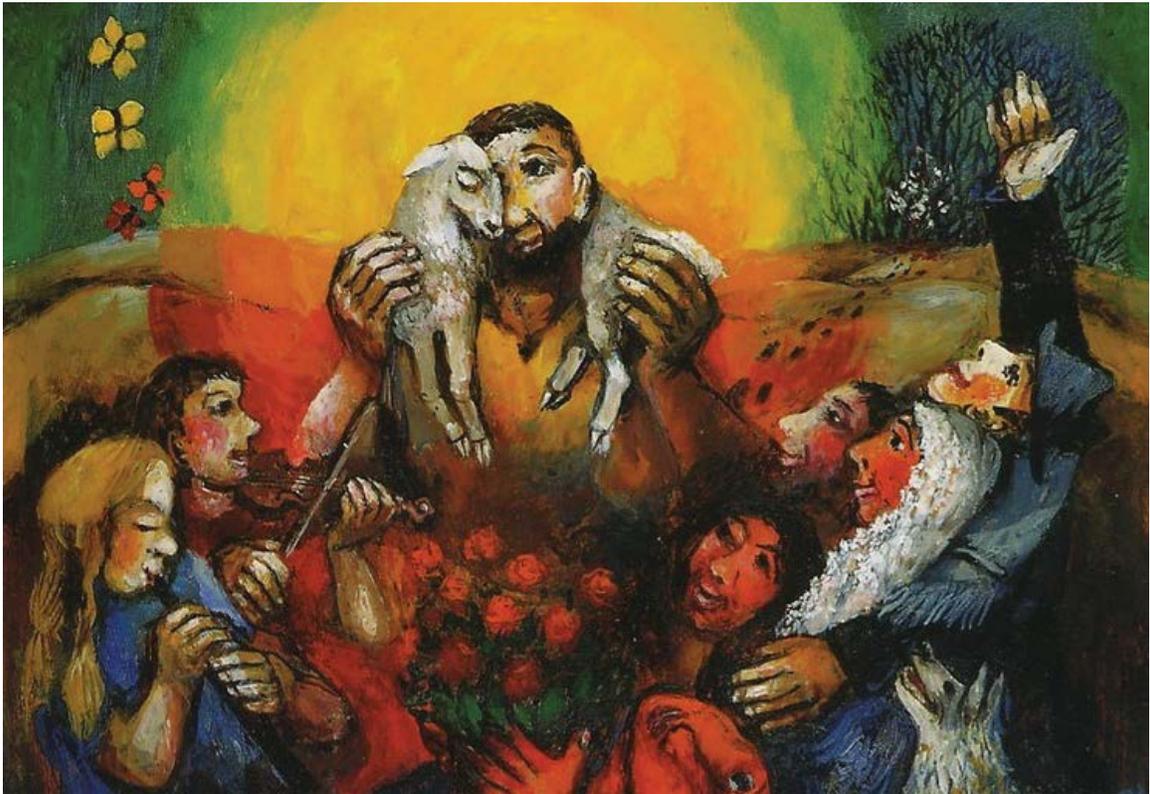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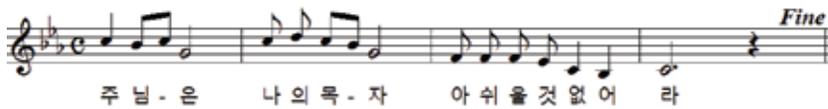


〈착한 목자〉, 지겨뢰더

[제1독서] 사도 2,14-17.36-41

[화답송] 시편 23(22),1-3-7.3-4-4.5.6
(◎ 1)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베드 2,20-25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복음] 요한 10,1-10

[성가 안내]

- 입당성가: [55] 착하신 목자
- 봉헌성가: [332] 봉헌 [215] 영원하신 성부
- 성체성가: [171] 오 거룩한 생명의 샘 [180] 주님의 작은 그릇
- 파견성가: [244] 성모의 성월

나는 양들의 문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¹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²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³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⁴ 이렇게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 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⁵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⁶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⁷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⁸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⁹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¹⁰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Jesus said:

“Amen, amen, I say to you, whoever does not enter a sheepfold through the gate but climbs over elsewhere is a thief and a robber. But whoever enters through the gate is the shepherd of the sheep. The gatekeeper opens it for him, and the sheep hear his voice, as the shepherd calls his own sheep by name and leads them out.

When he has driven out all his own, he walks ahead of them, and the sheep follow him, because they recognize his voice.

But they will not follow a stranger; they will run away from him, because they do not recognize the voice of strangers.”

Although Jesus used this figure of speech, the Pharisees did not realize what he was trying to tell them.

So Jesus said again, “Amen, amen, I say to you, I am the gate for the sheep.

All who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robbers,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through me will be saved, and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A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slaughter and destroy;

I came so that they might have life and have it more abundantly.”

묵상

예수님께서 자주 쓰시는 목자와 양의 비유는 당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근한 비유였습니다.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양은 그의 인도를 받아 낯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마침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문’으로 비유하신 말씀은 자못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들어설 때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듯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통하여 들어가야 할 공간이야말로 참된 구원의 길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에 친히 지시고 십자 나무에 달리시어”, 그분의 상처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영혼의 목자이시며 보호자이시기에 그분의 부르심을 따르면, 우리가 설령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지도자들이 난무하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서 열어 주시는 문으로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은 내 감각을 자극하고 장밋빛 희망으로 포장된 유혹의 손길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라고 외친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2천 년이 넘는 오늘에 더 절박하게 들리는 듯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하게 살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소 주일인 오늘은, 스스로 거룩하게 살면서 세상에 복음의 참된 기쁨을 선포할 성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 교회는 거룩한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용기를 갖고 기쁘게 각자 받은 부르심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율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 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복음이란?

미사에서 복음서를 봉독할 경우 사제나 부제가 먼저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고 말한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다. 신약 성경에는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각 복음서는 네 복음사가(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가 각각 기록하였다고 전해 온다.

네 복음서에서 네 명의 복음사가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는 만큼 서로 같거나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고백하는 점만은 같다.

네 복음서 중 마태오 · 마르코 · 루카 복음서는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 아주 많다. 이를 ‘공관 복음서’라고 부른다. 요한 복음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지만 그 구성과 문체가 공관 복음서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공관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의 행적을 적게 전하기는 하지만 공관 복음서에서 전하지 않은 사실들도 전해 준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 다른 복음서들은 저마다 예수님에 관한 ‘색다른’ 증언을 전해 주기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 이심을 믿는 이들의 증언이다. 그들은 실제 있었던 사건들에 관해 자신들이 들은 것을 신자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려고 애썼다. 그런 점에서 복음서는 분명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복음서는 일어났던 사건을 전하는 ‘소식’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 예를 들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믿음도 함께 전해 주는 것이다.

한편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 즉, 성령의 은총을 가득 받은 이들이 기록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이 성경 저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가득히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므로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느님이시라고도 할 수 있다.



복음서의 가르침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더 많이 알 수 있다!

어떤 사건을 여러 명이 보면, 보는 각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전하곤 한다. 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각 복음사가마다 같은 사건을 조금씩 다르게 전한다. 물론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는 중요한 점은 변함없다. 오히려 네 복음사가의 다양한 증언들을 통해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좀 더 풍성하게 전해 들을 수 있다.

Q 사도들은 누구일까?

신약 성경은 종종 사도들에게 관해 이야기한다. 사도들은 늘 같은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보통 사도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을 말한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다. 사도들은 대부분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굳게 믿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하셨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만은 생전의 예수님을 뵈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사도로 뽑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 다시 말해 바오로 사도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르지는 않았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그를 찾아볼 수 없고,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를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오로 사도는 ‘모든 민족의 사도’ 또는 ‘이민족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소아시아, 로마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주일미사나 대축일 미사 때 ‘사도신경’을 외운다!

가톨릭교회를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고 고백한다. 이는 사도들이 신앙의 모범이자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면서 믿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사도’라는 이름을 얻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직접 맡기셨다. 사도들은 두 부분에서 모범이 된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초대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에게 잘 전해 준다.

꾸르실로 소식



제16차 여성 꾸르실로 교육(4월 27일-30일) 참가자 13명은 3박 4일의 여정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30일(일) 오후 7시 친교실에서 환영식을 가졌다. 선배 꾸르실리스타들과 가족들의 뜨거운 관심과 백인현 주임신부의 축하인사를 받으며 평신도 사도직으로서의 삶과 나눔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백인현 주임신부는 “주님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이들을 강복했다. 새롭게 합류한 13명의 꾸르실리스타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한 8명의 봉사자들은 “참가자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2017년 제9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성령은사 쇄신운동 50주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라.” (독시록 21,3)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팜로티 수도회)

일시 : 5월 28일(주일) 1:30 pm ~ 9:00 pm
29일(월) 9:00 am ~ 5:00 pm
(Memorial weekend)

장소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회비 : \$30.00 (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문의 : 미 동중부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 (443-717-0886)

신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장



5월은 성모성월

성모의 노래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뒤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셨다. 그 때 엘리사벳의 찬송을 들으시고 성모님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찬송하신 노래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다.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고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 그 인자하심은 세세대대로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 당신 팔의 큰힘을 펼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도다.
 - 권세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미천한 이를 끌어올리셨도다.
 -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 기도합니다.
-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 아멘

CCD-News

Jr. High BASH



Arlington Diocese's largest Catholic Middle School students gathering, Jr. Bash was placed on Saturday, April 29th at St. John Paul the Great High School.

This year's Keynote speaker was Mr. Mike Patin who has worked in a variety of ministry settings since 1984. Since 2003, he has worked full time as a speaker and "faith horticulturist." and Mike also received the National Catholic Youth Ministry Award in 2006.

The event was consisting of music, games, confessions, and Sunday Vigil Mass.



John I



I felt that it was nice to meet my other friends from different churches. I felt that the lines for the inflatable play places were a little bit too long, but in general it wasn't a bad experience. I liked the speech that Mike Patin gave because it let me understand how to get closer to God.

Bryan I

Things I liked were the fun activities and the prizes. The food was just as amazing. But the Mass was really hard to get through. Sitting on the really hard floor gave me sore muscles today. I think setting chairs up may be better for the future times.



Aaron Park I

It was really fun, and it was great to see so much other people who came to celebrate the gifts of God.

Ryan Park I

Even though it was my 2nd time going to BASH it was good.



Adrian Kim I

I really enjoyed the fun activities we did outside and thought the speeches from the guests and the Priest was very inspiring.

Robin Hwang I

The Junior High Bash was a truly different experience for me and it invoked a passion for God and just plain fun. I would recommend any students of the 6th, 7th, and 8th grade to attend next year.



Jason Chung I

I went to Junior High Bash this year and I highly recommend that others to come if possible, even if it is not mandatory. I went last year too, and both time I very much enjoyed the experience. The games you can play there are very fun, but I think the best part is just getting to hang out with your friends and talk (and also pizza plus Rita's Italian Ice). I will also be coming next year to worship God and have a great time doing it.

Minjun I

한국에서 미국온지 이제 일년정도 되었어요 낯선 이곳에서 좋은친구 성경말씀... 정말 은총받은 하루였어요.



Andrew Lee I

I felt that worshipping God isn't always boring.



CYO-News

WorkCamp Fundraising

Another huge successful fundraising for 2017 Arlington Diocese WorkCamp! Special Thanks to Fr. Seong, camp participants, parent volunteers and Fresh World (International Supermarket).



ANNOUNCEMENT

1. 2017 Sunday School Annual Town Hall Meeting

- When : May 19 (Fri), 7pm to 9pm
- Where : Hasang Room #110 (all parishioners are invited.)

2. May Jr. High Activity

- When : May 20 (Sat), 2pm to 5 pm
 - Where : Hasang building
 - All 6th-8th graders are welcome.
- (More information will be sent out via email)

3. No Sunday School

- When : May 21(Sun)
- Students Mass at 10am at the gym (Sunday School teachers and the students only)

선교를 위한 성령의 이끄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자인 우리는 개인적 위로를 위하여 하느님 사랑의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 자신이나 사익만을 추구하고자 부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느님께 사랑받는다 것을 느끼는 기쁨으로 어루만져져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만 이러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으시고 파견되신다.

선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나자렛의 회당에서 그 사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루카 4,18-19). 이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곧,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우리 형제자매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에 함께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솟아나는 의문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확신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루카 24,13-15 참조). 두 제자들은 십자가의 치욕적 사건에 상처받아 낙심한 채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깨어진 희망과 실현되지 못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 복음의 기쁨이 있던 자리를 슬픔이 꿰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단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벽을 쌓는 대신에 돌과구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낙담에 서서히 변화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타오르게 하시며, 말씀을 하시고 빵을 떼어 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단독으로 선교의 사명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치고 오해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다음과 같은 것을 깨닫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걸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숨 쉬시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선교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



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선교 활동 한가운데에서 자신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복음의 기쁨, 266항).

예수님께서서는 씨앗이 자라도록 하십니다.

끝으로, 복음에서 선포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지니고 있어도 우리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나 개종의 강요나 편협한 광신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권력과 성공의 우상과 제도에 대한 과도한 염려와, 봉사의 정신보다는 승리주의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씨앗은 아무리 작고 보이지 않고 때로는 하찮아 보여도 하느님의 지지하지 않는 활동으로 조용히 계속해서 자랍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마르 4,26-27). 그래서 이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첫째 이유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당신의 관대하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적 계산을 뛰어넘어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하십니다.

복음에서 얻은 이러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선교의 기본이 되는 성령의 조용한 활동에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상 기도 없이는 성소나 그리스도인의 선교를 촉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느님과 만나게 되는 특별한 자리인 성체 조배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하여 성장하여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주님과 이러한 깊은 우정을 맺기를 권유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사제직과 봉헌 생활에 대한 새 성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청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복음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사목자들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저는 본당 공동체와 단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많은 기도 단체에게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서 당신의 추수할 밭에 일꾼을 보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거룩하신 성모님께서 이 이상을 받아들이시고 당신의 젊음과 열정을 하느님의 손에 맡기시는 용기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우리가 성모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기꺼이 응답하며 기쁘게 길을 떠나(루카 1,39 참조) 온 세상에 하느님을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성모의 밤

- 일시 : 5월 12일(금) 오후 8시
- 꽃 봉헌과 함께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봉헌하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2 첫 영성체식

- 첫 영성체를 하는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핌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7일(일) 11:40 미사 중
- 축하식: 미사 후 친교실(A-1,2)

3 구역임원 교육

- 일시: 5월 7일(일) 오전 11:30(B-1,2)

4 성모회 임원회의

- 일시: 5월 7일(일) 오후 1시(B-1)

5 청소년 사도회

- 일시: 5월 7일(일) 오후 1시(B-3,4)

6 성인 견진성사 신청

- 서류 접수: 5월 7일까지(8시 / 10시 미사 후)
- 준비 서류: 견진 신청서, 영세자 증서 & 혼례증서
- 견진식: 6월 25일(일) 주교좌성당 오후 2:30
- 문의: 김우기 교육부장(703) 395-1305

7 제1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봉사부 / K of C 주관)

- 일시: 5월 7일(일) 오후 2시
- 장소: South Riding Golf Club
- 초, 중, 고 에세이 컨테스트 장학 기금을 위한 골프대회입니다. 특별히 구역부 및 단체부 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문의: 김바나드 (703)342-2194

8 불우 이웃 돕기 야드 세일

- 불우 이웃 돕기 일환으로 야드세일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13일(토), 5월 14일(일)
- 장소 : 성당 주차장
- 물품 기증 : 5월 7일까지(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강동훈 요한(703)585-2700

9 공동체 기도회

- 일시: 5월 13일(토) 오후 8시
- 매월 둘째 토요일은 공동체 기도회의 날입니다. 소속 공동체에 참석하시어 신앙과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10 단체장 회의

- 일시: 5월 14일(일) 오전 11:30(B-3,4)

11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5월 14일(일) 오후 1시(B-3,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7일(일)	부활 제4주일	구역임원교육(11:30, B-1,2), 첫영성체반 축하파티(12:45, B-1,2,3), 성모회임원회의(오후 1시, B-1), 청소년사도회의(B-3,4),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오후 2시)
8일(월)	부활 제4주간	아침미사 없음
9일(화)	부활 제4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레지오마리아에(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10일(수)	부활 제4주간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11일(목)	부활 제4주간	아침미사 없음
12일(금)	부활 제4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00, 하상관, 친교실)
13일(토)	부활 제4주간	아침미사(오전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에(오전 9:30, 친교실), 하상한국학교(오전 9:30, 하상관), 복지부 야드 세일, 공동체 기도회(오후 8시)
14일(일)	부활 제5주일	Mother's Day, 야드 세일, 단체장회의(오전 11:30, B-3,4), 꼬미시움 월례회의(오후 1시, B-3,4)

12 성경통독 참석자 모집

- 본당 설정 25주년(2021년)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성경(신약, 구약)을 통독하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접수: 매주 8시, 10시 미사 후(친교실)
- 문의: 지경수 요한(571)331-6047

13 하상한국학교 종업식 및 학예회

- 일시: 5월 20일(토) 오전 11시
- 장소: 하상관 체육관
- 2016년-2017년도 정규학기 종업식 및 학예회에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4 Car Raffle Winners

- Knights of Columbus에서 실시한 청소년 후원 Car Raffle Ticket이 총 \$1,100 판매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HONDA Car Winner	
Honda Civic	Dan Thompson(St. Leo)
Buick Verano	John Carpenter(St. John)
GMC Truck	Romasanta Family(St. Veronica)
Honda CRV	acqueline Pham(St. Leo)
Odyssey Van	Bob De Man(St. Raymonds)

15 미 동북부 ME 부부 주말 여행

- 부부간의 성숙한 대화를 통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도와주는 특별한 주말이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5월 27(토) - 5월 29(일)
- 장소 : Double Tree Hilton Hotel, NJ
- 문의 : ME 대표 김 레지나 (703-477-2446)

16 제9회 미동중부 성령대회

- 일시: 5월 28일(일) 오후 1:30 - 오후 9시
5월 29일(월) 오전 9:30 - 오후 5시
- 장소: 워싱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신청비: 5월 14일까지: \$30 / 15일 이후 \$40 (2식 식사 포함)
- 버스운행 - 선착순/ 노약자 우선
- 문의: 안진이 제올리아 (703)216-5792

17 5월 성물부 세일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20% 세일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18 이스라엘 성지순례(프란치스코회 주최)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12월 10일(일)까지(선착순 10명)
- 비용: \$3,900(Deposit \$1,000)
- 인솔 신부님: 조기영(안드레아) 프란치스코 수도회
- 문의: 한기남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본당 신부님들께서 북미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 (KAPA) 컨퍼런스에 참석하시어 5월 8일(월)부터 5월 11일(목)까지 평일 미사가 없습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부활 제4주일: 창세 49-탈출 3, 마태 15-16**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 5월 11일 (목) 오후 5:00-6:00
- 5월 12일 (금) 저녁 11:00-12:00
- 5월 13일 (일) 자정 12:00-1:00

- **드라마** : 따로 또 같이 1. "가정인가 신앙인가"
- **특강** : 서양문화의 어머니 그리스도교 박승찬 교수(10) 위대한 교부들을 통한 신앙의 성장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4월 30일 (부활 제3주일)

주일헌금	\$ 7,528.73
교무금	\$ 10,260.00
교무금(신용카드)	\$ 3,590.00
특별헌금	\$ 100.00
2차 헌금	\$ 2,427.72
합계	\$ 23,906.45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황님의 5월 기도 지향

선교: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화해와 정의와 평화를 예언자적으로 증언하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혁(발바라), Thomas Byrne, 홍중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근(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민복(아녜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재종(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타),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오로), 김영성(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분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번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앤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에스타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경(안드레아)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신애(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파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웨딩사진 전문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Folds & Crafts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 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요셉)